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 and Repository Library by Using of Public Library Cooperative Network

강 현 민(Hyen-Min K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1. 국내 자료공동보존 협력현황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공공도서관 협력망 구조 및 운영실태 |
| 2. 선행연구 | IV. 국가보존도서관 및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방안 |
| II. 용어정의 및 국내외자료공동보존
사례조사 | 1.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 모델 |
| 1.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용어개념과 정의 | 2. 국가보존도서관 및 공동보존도서관의
설립과 상호협력망 구축 |
| 2. 해외사례: 미국 핀란드 | V. 요약 및 결론 |
| 3. 국내사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서고 | |
| III. 공공도서관협력망구조 및 운영현황 | |

초 록

오늘날 급속한 인쇄출판물의 증가에 따라 도서관계는 심각한 장서의 소장공간 부족문제를 겪고 있다. 문제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먼저 해외 주요국의 자료공동보존 실태를 소개하고, 국내사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관과 국립디지털 도서관의 자료보존서고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한 “공공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2005”를 기초로 하여 국내 공공도서관간 자료보존 협력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고는 도서관계의 소장공간 부족문제 해결방안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앙관으로 하고 48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는 공공도서관협력망을 활용하여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설립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국가보존도서관, 공동보존도서관, 공공도서관협력망, 자료공동보존, 소장공간

ABSTRACT

The continuous accumulation of printed materials prompts rethinking of library space problem and systematic preservation of library collection. To respond to this challenge, this study provides actionable models for 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 and the Cooperative Repository Network. The development of the models is based on the analysis of overseas best practices as well as data derived from current state of public library cooperative network administer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is study also offers a range of strategies for the operation of repository library system.

Key Words: National Repository Library, Repository Library, Library Cooperative Network, Preservation, Library Space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 정보화지원팀 주임연구원 (nihao@kisdi.re.kr)

• 접수일: 2006년 1월 26일 • 최초심사일: 2006년 3월 8일 • 최종심사일: 2006년 3월 10일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세기 이후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디지털출판물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매체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도서관 장서매체인 인쇄출판물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보기술의 발전이 대량의 디지털자료의 생산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온라인 자료와 오프라인 자료 간 상호 정보유통의 가속화를 촉진시켜 새로운 인쇄자료가 확대 재생산되는 촉매역할을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도서관은 여전히 소장공간의 근본적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고 도서관은 장서관리에 있어서 예산, 인력, 시설 등 운영상의 문제점 증가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시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도서관별로 보존서고 등을 두고 운영하고 있지만 급속히 늘어나는 장서수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도서관간 상호대차, 전자저널 구독 컨소시엄 구축, 공동목록작성, 학술정보교류, 분담수서 등 다양한 도서관간 협력체제가 활발히 구축·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성숙된 협력적 배경을 기반으로 도서관 소장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서관간 자료의 공동보존과 활용이라는 새로운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본고는 기존 자료보존과 관련된 용어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국가보존도서관(National Repository Library)과 공동보존도서관(Repository Library)이라는 통일된 용어사용을 제기하였다. 또한 각 도서관들이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자료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서관 협력모델로서 국가보존도서관과 공동보존도서관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1조~제45조(도서관협력망)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중앙관으로서 전국 487개 공공도서관으로 이루어진 협력망을 기반으로 자료의 공동보존 및 활용을 위한 협력망 구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97년부터 매년 조사발표 하는 도서관 협력망 운영실태현황조사 보고서 중 2005년 발행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내 공공도서관간 상호협력내용 중 도서관 소장장서의 공동보존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이용한 지역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을 위해 조옥수(2003)는 대구·경북지역의 국립대학교 도서관들의 시설, 장서, 자료이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이들 도서관들의 연간 장서증가량과 도서관 공간부족현황, 문헌

이용률 감소현황, 자료의 훼손 및 파손현황, 보존서고 운영에 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장서를 공동으로 보존하고 관리·운용하는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의 필요성 및 시설, 관리, 서비스 3가지 측면에서의 참조모델을 제시하였다. 비록 협력에 참여한 대학도서관들이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에 있어서 장서소유권, 운영방식, 인력, 예산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 상호협력력을 통한 자료공동보존을 위한 필요성 및 문제제기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한편 강미희(2003)는 국내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폐기실태와 공동보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소장공간 적체현상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자료공동보존에 대한 수요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강미희는 이 연구에서 자료폐기시행에 대한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늘어나는 출판량과 함께 도서관에서 자료폐기기준과 정책, 폐기방법 등의 구체적 규정미비로 자료폐기시행이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아 도서관 소장공간의 적체현상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동보존도서관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다. Salomon과 Shaffer(1997), Kohl(2001)는 Ohio주에서 지원하는 대학도서관의 공간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5개의 공동보존도서관¹⁾인 Wide Remote Storage System에 대해 설명하였다. 더불어 각각의 공동보존도서관의 연혁, 이용자서비스, 재정, 운영체제 및 운영방법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New York Public Library(1999)는 콜롬비아대학과 프린스턴대, 뉴욕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보존도서관인 ReCAP의 사례연구를 통해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의 필요성과 ReCAP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밖에 Payne(2001)은 Washington D.C에 있는 American University 등 7개 대학도서관들의 자원공유프로그램의 하나인 The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 (WRLC)의 설립연혁, 운영체제, 이용자서비스, 자료보존환경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Kelsey와 Kendrick(2001)은 자료이관방법과 원칙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Felber(2001)는 공동보존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산장비의 기준에 관한 연구를, DeWeese(2001)는 공동보존도서관에 입수된 자료의 정리에 관해 연구하였다.²⁾

II. 용어정의 및 국내외자료공동보존사례조사

1.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용어개념과 정의

보존도서관(deposit library)은 도서관의 서가나 서고의 공간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교적 이

1) 5개 공동보존도서관: Northeastern Ohio Cooperative Regional Library Depository, Northwest Ohio Regional Book Depository, Ohio State University Library Book Depository, Southeast Ohio Regional Library Depository, Southwest Ohio Regional Library Depository(SWORD)

2) 저자주: 조옥수(2003.12)의 글 재인용 및 재구성

용률이 낮은 자료들을 별치하여 보관, 보존하는 곳으로서 본래의 도서관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건립된 보존시설이다. 여기서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자료라 함은 훼손자료, 오판손자료, 복본자료, 구판자료 들만 의미하는 것(조옥수, 2003, 9p.)과 더불어 자료의 이용률을 볼 때 현재 활발하게 이용되지는 않지만 비용 대 효과면에서 서가배가 위치를 옮겨도 무방한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존도서관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과 더불어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일련의 행위를 관리하는 도서관적 관리기능이 강조된다.

조옥수(2003)는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참조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라는 글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동보존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존 보존도서관(deposit library)의 보존적 기능을 포함하여 도서관 상호협력과 도서관적 서비스기능을 부여한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공동보존도서관의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납본도서관과 기탁도서관을 의미하는 ‘depository library’의 기능과 현황을 미국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한국도서관협회 1996)에서 자료보존 및 상호협력적 공동보존의 개념이 있는 엔트리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국문엔트리가 다양한 영문엔트리로 표현되고 있으며, 반대로 하나의 영문엔트리가 다양한 국문의미로 사용되는 등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국문엔트리인 ‘보존서고’³⁾는 영문으로 ‘repository’로 표기하나 영문엔트리인 ‘repository’는 국문으로 ‘보존서고’와 ‘공동보관소’ 두 가지로 표기하고 있다. 국문엔트리 ‘공동보관소’의 영문 표기는 ‘repository’를 비롯하여 ‘reservoir library’, ‘storage center’, ‘deposit library’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영문표기 ‘deposit library’를 영문엔트리로 찾아보면 ‘공동보관소’뿐만 아니라 보존도서관이라는 국문표기로도 적혀있다. 결국 ‘보존서고’, ‘공동보존소’, ‘보존도서관’을 동일엔트리로 지시하고 있으며, 또한 영문엔트리인 ‘repository’와 ‘deposit library’도 동일엔트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엔트리에 대한 개념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존도서관’⁴⁾을 ‘deposit library’라고 하나 이와 비슷한 영문표기인 ‘depository library’는 ‘기탁도서관’과 ‘납본도서관’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⁵⁾를 갖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서들조차도 용어사용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용어의 이러한 혼란스런 상황을 바로 잡기위해 각 용어별 정확한 개념과 의미를 깊이 있게

3) 1. 기탁된 도서의 상호대출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도서관이 협력체제를 갖추어 이 협력에 참여하는 도서관 2. 기록 보존소에 속하는 보존문서서고(문헌정보학용어사전 161p.)
4) 각 도서관에서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도서 및 기타 인쇄물 중 가치가 있는 것을 공동으로 보존하는 도서관이다. 서고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몇몇 도서관이 일정한 협정에 의하여 이와 같은 보존도서관을 설치운영하기도 한다.
5) depository는 창고, 저장소; 수탁[보관]자라는 의미이고 deposit은 (주로 미국) 저장소; 보관소, 창고, 맡기기로 서 위탁이나 수탁이나의 구분만 찾을 수 있고 나머지 그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다.

논하는 것은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이런 혼란스런 용어들을 뒤로 하고 새롭게 정리된 개념의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문헌정보학용어사전의 국문엔트리에 없으며 본고에서 새롭게 소개하고자 하는 엔트리인 ‘공동보존도서관’과 ‘국가보존도서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영문엔트리를 제의하고자 한다.

공동보존도서관이란 영문엔트리로 ‘repository library’라 하며, 그 의미는 상호협력체제에 참여한 도서관들의 소장공간 부족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된 도서관이다. 그 주요기능은 도서관 서비스기능(circulation), 자료보존(preservation) 및 복원(conservation) 기능, 폐기 및 이관보존을 위한 평가선정(appraisal)⁶⁾ 기능을 갖는다. 장서의 소유권(ownership)은 참여도서관에 있으나 설립 운영(governance), 직원관리(staffing), 대출·반납서비스(circulation),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예산운영(budgeting), 폐기 및 이관정책 등은 상호협력 주체간의 정책적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결정에 따른다. 이와 같이 공동보존도서관(repository library)은 기록관리학 관점으로 보면 레코드센터(Record Keeping Center)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로서 기존 보존서고, 공동보존소, 공동집서시설이라는 용어의 기능적 개념을 모두 포괄하며 자료이용서비스 및 평가선정 기능이 부가적으로 추가확대된 용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보존도서관과는 달리 자료보존을 국가적 수준(national level)으로 수행하는 시설에 대해 언급한 국내의 논문을 보면 ‘국가자료공동보존소’(강미희 2003) 또는 ‘국가과학기술문헌센터’(홍현진 2002)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해당 논문에서 자세하고 명확한 기능적, 내용적 정의 없이 사용되어 공식적인 용어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론적 배경이 취약하다.

도서관 분야에는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⁷⁾과 기록학 분야에는 국가보존문서관(national archives)⁸⁾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용어와는 별개로 국가보존도서관(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국가보존도서관(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이란 공동보존도서관(Repository Library)으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와 자체 수집한 국가문헌(National Document)의 보존 및 이용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가급 도서관을 말한다.

6) 기록학적 개념으로서 모든 기록(records)에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보존기록물(archives)과 그렇지 않은 것을 평가, 선별, 보존, 폐기하는 과정을 말한다.

7) 국가가 설립운영하며 봉사범위가 전체 국민에 이르는 국가대표도서관, 국립도서관의 기능은 국가문헌의 수집, 납본, 문헌의 국제교환, 서지정보봉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역할을 수행토록 되어 있다(문헌정보학용어사전 1996 41p.).

8) 국가에서 설치, 운영하는 문서관. 여기에 소장되는 보존문서관 일반적으로 수서서류를 뜻하나, 최근에는 인쇄물, 레코드, 녹음테이프, 기록필름, 사진 등도 포함한다(문헌정보학용어사전 1996 42p.).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1호)

〈표 1〉 자료보존시설 및 공동보존시설에 관한 국문엔트리

(자료 : 문헌정보학용어사전1996 정리)

국문엔트리	영문번역명	내 용	수록 페이지
보존서고	repository	(1) 기탁된 도서의 상호대출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도서관이 협력체제를 갖추며 이 협력에 참여하는 도서관. (2) 기록보존소에 속하는 보존문서서고	161
공동보관소*	repository	한 개의 도서관시스템이나 기탁된 도서의 상호대출을 위해 마련된 도서관 상호협력시스템에 속한 도서관소	31
공동보관소*	reservoir library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협정에 의해 참가도서관들의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들을 공동으로 보관하는 시설	31
공동보관소*	storage center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협정에 의해 참가도서관들의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들을 공동으로 보관하는 시설	31
공동보관소*	deposit library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협정에 의해 참가도서관들의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들을 공동으로 보관하는 시설	31
보존도서관	deposit library	각 도서관에서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도서 및 기타 인쇄물 중 가치가 있는 것을 공동으로 보존하는 도서관이다. 서고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몇몇 도서관이 일정한 협정에 의하여 이와 같은 보존도서관을 설치운영하기도 한다.	160
공동집서시설	cooperative collection resource facility	여러 도서관이 공동으로 유지하는 시설로, 협력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수집, 관리하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자료수집은 공동구입하거나 참가기관으로부터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를 이관 받으며, 공동보관소(storage center)와는 달리 수집된 모든 자료의 소유권이 이 시설에서 가지고 있다.	31
기탁도서관	depository library	미국에서는 정부간행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된 도서관	58
납본도서관 #	depository library	영국에서는 법에 의하여 발행된 모든 도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말하며, 미국에서는 미국정부 간행물과 국회도서관의 인쇄목록카드를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말하며 library of deposit 또는 copyright library라고도 한다.	61
납본도서관 #	copyright library	영국에서는 법에 의하여 발행된 모든 도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말하며, 미국에서는 미국정부 간행물과 국회도서관의 인쇄목록카드를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말하며 library of deposit 또는 copyright library라고도 한다.	61
납본도서관 #	library of deposit	영국에서는 법에 의하여 발행된 모든 도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말하며, 미국에서는 미국정부 간행물과 국회도서관의 인쇄목록카드를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말하며 library of deposit 또는 copyright library라고도 한다.	61
국가도서관	national library	국가가 설립운영하며 봉사범위가 전체 국민에 이르는 국가대표도서관. 국립도서관의 기능은 국가문헌의 수집, 납본, 문헌의 국제교환, 서지정보봉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역할을 수행토록 되어 있다.	41
공동보존도서관	없음	없음	저자 정의
국가보존도서관	National Repository Library	없음	저자 정의

* # 동일 국문엔트리에 다양한 영문번역명 존재

〈표 2〉 자료보존시설 및 공동보존시설에 관한 영문엔트리

(자료 : 문헌정보학용어사전1996 정리)

영문엔트리	국문번역명	내용	수록 페이지
cooperative collection resource facility	공동집서시설	여러 도서관이 공동으로 유지하는 시설로, 협력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수집, 관리하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자료수집은 공동구입하거나 참가기관으로부터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를 이관받으며, 공동보관소(storage center)와는 달리 수집된 모든 자료의 소유권을 이 시설에서 가지고 있다.	31
copyright depository library	판권 보존도서관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모든 출판물에 대하여 특정부수를 납본 받도록 지정된 도서관	400
deposit library*	공동보관소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협정에 의해 참가도서관들의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들을 공동으로 보관하는 시설	31
deposit library*	보존도서관	각 도서관에서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도서 및 기타 인쇄물 중 가치가 있는 것을 공동으로 보존하는 도서관이다. 서고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몇몇 도서관이 일정한 협정에 의하여 이와 같은 보존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기도 한다	160
deposit station	기탁소	중앙관이나 분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상점, 학교, 공장, 클럽 기타 단체나 기관의 시설일부를 빌려 설치된 공공도서관 봉사시설의 하나로, 자주 교체되는 소량의 장서를 갖추고 중앙관이나 분관에서 파견된 직원 또는 그러한 시설 등의 직원에 의해 대출을 중심으로 자료제공을 하는 시설	58
depository library #	기탁도서관	미국에서는 정부간행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된 도서관	58
depository library #	납본도서관	영국에서는 법에 의하여 발행된 모든 도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말하며, 미국에서는 미국정부 간행물과 국회도서관의 인쇄목록카드를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말하며 library of deposit 또는 copyright library 라고도 한다	61
regional depository library	지역기탁도서관	미국의 문서국(Superintendent of Documents)이 배포하는 미국정부 간행물 중 적어도 1부는 법률에 의하여 수집, 보존하도록 지정된 기탁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상호대차와 참고서비스를 수행한다.	348
repository*	공동보관소	한 개의 도서관시스템이나 기탁된 도서의 상호대출을 위해 마련된 도서관 상호협력시스템에 속한 도서관소	31
repository*	보존서고	(1) 기탁된 도서의 상호대출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도서관이 협력체제를 갖추어 이 협력에 참여하는 도서관. (2)기록보존소에 속하는 보존문서서고	161
reservoir library	공동보관소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협정에 의해 참가도서관들의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들을 공동으로 보관하는 시설	31
storage center	공동보관소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협정에 의해 참가도서관들의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들을 공동으로 보관하는 시설	31

* # 동일 영문엔트리에 다양한 국문번역명 및 비슷한 내용의 설명수록

2. 해외사례조사: 미국, 핀란드

해외의 자료공동보존에 대한 사례는 크게 북미지역과 북유럽지역으로 나뉘 살펴 볼 수 있다. 이 두 지역의 자료공동보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달리 하고 있는데, 북미지역은 지역적, 관종별 차원에서 개별 및 공동운영형태로 다양한 공동보존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지역은 국가

문헌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또는 연방정부차원이 중앙집중식의 대규모적인 자원수집체제가 발전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중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핀란드의 사례를 살펴보자.

가. 미국

2004년 5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에는 약 50여 개의 공동보존 시설들이 있다. 각 대학도서관들은 자체장서의 보존시설로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공동보존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도서관수도 늘어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시설을 공유하는 도서관은 전체의 43%이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은 전체의 57%로 개별운영하는 도서관이 다소 높다

<표 3> 미국 보존서고 개별운영 및 공동운영 현황

개별운영	공동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nghamton University • Case Western Reserve • Cornell University • Harvard University •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 LIBRARY OF CONGRESS • Michigan State University • Penn State University • Rice University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Stanford University • University of Florida •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opening 2004) • University of Michigan • University of Pennsylvania • University of Pittsburgh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University of Texas • Virginia Tech • West Virginia University • Yale Univers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Stor (Five Colleges of Ohio) • Duke University • Johns Hopkins University • Minnesota Library Access Center • New England Regional Depository • Northeastern Ohio Cooperative Regional Library Depository • ORBIS • PASCAL (Colorado Academic Libraries) • Research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 (ReCAP) • Southeast Ohio Regional Library Depository • Southwest Ohio Regional Depository • Tri Universities Group • University of California Nor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 University of California 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

대부분 신설되는 공동보존도서관은 하버드대학교의 모델⁹⁾처럼 빌딩모듈(building module) 당 1~2백만 책을 소장할 수 있는 고밀도 서가(High Density Shelf)로 되어있고 15만 책(CONStor)에서 500만 책(ReCAP, SRLF)을 소장할 수 있는 고밀도서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전통적인 보존서비스(Depository Services)는 접근 및 서가배열, 청결보관, 준영구 또는 영구보존, 보호

9) 자료공동보존에 관한 논의는 1902년 하버드대학교 총장인 Eliot에 의해 '이용도에 따른 장서 분리보존정책'이 제안되었는데, 도서관의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자료와 불용자료에 대한 분리보존 방안을 제시하였고, 불용자료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공동보존소, 즉, 대학간 상호보존센터 건립을 제안하였다.

및 복원, 물리적·전자적 전달, 관내이용 등이 있다.

〈표 4〉는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을 비롯한 미국의 대표적인 공동보존협력 프로그램 사례들이다.

〈표 4〉 미국의 주요 공동보존협력 사례

(출처 :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pository Libraries, 2004.5 재구성)

공동보존협력명	주요내용	비고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 DC 내 8개 대학 참여 • 콘소시움 기관간 분담장서(shared collection)와 분담목록(shared catalog), 통합 브라우징 수행 • 자료는 서가 상 통합 배가(interfiled) • 현재 약 1백만 책 소장 • 2백만 권 소장 가능한 예비확장공간 확보 	
Minnesota Library Access Center(ML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깊이 84피트, 길이 600피트, 넓이 70피트로 이루어진 지하 동굴 •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 보낸 장서 보관 • 모든 장서는 미네소타지역 주민이 이용가능 	
New England Regional Deposi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3개 기관의 도서관이 참여 • 700여 NELINET 회원들 이용가능 • 분리장서(Separate collections)로 구성 • 시설은 각 도서관이 소유(ownership)하나 운영은 벤더(vendor)가 통합관리 	
Research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 (Re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공공도서관, 콜롬비아대학, 프린스턴 대학 참여 • 분리장서(separate collections) 및 분리목록(separate catalogs) 형태로 운영 • 도서관에 의해 서가가 할당되어지고 물리적으로 분리됨 • 현재 4백만 책이상의 장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전체 7백만 책을 보유할 수 있는 소장공간과 3천7백만 책까지 소장할 수 있는 확장공간 확보 	
Five College(Massachusetts) Library Deposi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담장서(Shared Collection, Repository) • 분담(shared) 또는 위탁(delegated) 소유권(ownership) • 자료의 협력적 선정(selection) 및 보존(retention) 	
Five Colleges(Ohio) CONS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복본배치 원칙 • 서가에 복본배치 불가 • 소장된 책에 대한 원소유기관의 소유권인정 • 다른 회원기관에게 이용가능토록 보장해야 함 • 회원기관이 제공하는 장서는 기관 장서목록에서 제적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PASCAL(Colorado)		

한편 자료보존이 'depository'라는 개념에서 점점 보존기능(storage function)과 분담장서기능(shared collection function)이 부여되는 'repository' 개념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크게 소유권(ownership)과 운영주체(governance)와 기타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 우선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보면, 첫째, 도서관들이 여전히 장서크기(collection size)에 가치를 부여하려는 소유권(ownership)에 대한 집착이 크다. 둘째, 교수들은 특정 연구자료들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을 잃을까봐 걱정한다. 셋째, 보존본(repository copy)에 의존하는 캠퍼스 내 도서(copy)들을 제적

하는데 망설이고 있다. 다음 운영주체(governance)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많은 분담시설들이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으며, 둘째, 자관 소장본들의 매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보존본에 대한 영속적 접근을 위한 특별한 법률적 개입이 필요하다. 기타문제로는 첫째, 선택장서(selected collection)로서가 아닌 임시적이고 우연적으로 동시에 중복보존되는 장서의 문제점과 둘째 연속 간행물들이 결코 결호 없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문제점, 셋째, 인쇄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직 전자적으로만 전달해야하는가 또는 분실, 훼손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리적인 전달을 수행할 지에 대한 정책결정의 문제점들이 있다.

현재 논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자료공동보존 협력프로그램은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ies Shared Collection과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WRLC)이다

이밖에 NEDL 뉴잉글랜드보존도서관, 연구도서관센터(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CRL) 등이 있으며 공동협력보존소로는 캘리포니아 SRLF(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미네소타주 MLAC(The Minnesota Library Access Center)가 있다.

이밖에 지역공동보존소운영 사례로 단행본이 아닌 경제학 및 역사학 관련 저널의 공동보존시스템으로 1995년 JSTOR(Journal Storage)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경제학, 역사학 분야의 핵심잡지의 기간호에 대한 공동보존을 계기로 시작하였다. 자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공동보존소의 장서관발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954개의 미국기관과 461개 해외기관이 저널공동보존소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156개 출판사가 참여하고 있다.

나. 핀란드

핀란드의 국가보존도서관(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은 핀란드내의 모든 도서관 자료에 대한 경제적인 보존 목적을 위해 1989년 3월 1일에 처음 설립되었다. 핀란드국가보존도서관은 핀란드 내 다른 도서관들이 보내주는 자료들을 입수하고,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특수도서관 사이에서 대출·반납 기능 등 도서관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산하의 독립된 도서관으로 소속되어 있고 교육부가 지정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국가보존도서관은 'Law Act of 1078·1988'과 'Degree of 94·1992'라는 법에 근거하고 있다.

핀란드의 국가보존도서관은 핀란드 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발간물들의 최소한 한 카피(copy)는 보존함으로써 핀란드도서관 정보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있다. 장서는 소설, 비소설, 학위논문, 점자책 등 모든 주제 분야 모든 언어의 정기간행물, 단행본을 포함하고 있다.

〈표 5〉 핀란드 국가보존도서관 장서현황

(2005. 6. 30 현재)

구 분	소장규모
단행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3,736 titles • 1,083,259 items • 19,661m의 서가길이
정기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984 titles(= 1,030,000 volumes) • 32,077m의 서가길이
학위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00 titles • 2598m의 서가길이
음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651 titles

이 도서관은 인데버 정보시스템사(Endeavor Information Systems Inc.)의 보이저 도서관시스템(Voyager Library System)을 사용하고 온라인 도서관목록은 바아리(Vaari)¹⁰⁾라고 하며 이용은 무료이다. 주요 서비스 범위로는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그 밖의 지역에 대출 및 원문복사,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타도서관들은 e-mail이나 telefax나 서신, 전화 등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된 자료는 PDF파일이나 Ariel의 TIFF파일 포맷으로 전달된다. e-mail로 전달 받은 파일은 프린트 출력 후 삭제해야만 한다. 또한 무료인 상호대차의 소요시간은 최대 24시간 내로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국내사례조사: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서고

가. 자료보존관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관'¹¹⁾은 국가문헌자료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2000년 7월에 완공된 보존서고동이다. 지하4층, 지상 2층 연건평 5,000평 규모로 약 400만 책의 수장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상 2개층은 비디오, 오디오, CD-ROM 등 비도서자료 서고로서 온도 17℃, 습도 4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항온항습 시설을 갖추었다. 지하 4개 층은 귀중서고, 고서고, 일반도서용 서고로서 각 서고에는 50만여 책을 수장할 수 있는 총 35,000여 개의 목재서가와 모빌렉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료보존에 적합하도록 온도는 20℃, 습도는 50%를 유지한다. 또한 자료보존에 유해한 환경인자를 차단하고 온도, 습도 유지가 가능한 조습판넬과 도서소독을 위한 감압훈증 시설,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고서, 귀중서, 비도서, 동양서원본, 석박사 학위논문 복본, 일반만화, 동서양 귀중본, 정부간행물 등 약 200만여 책이 소장되어 있다.

자료보존관의 2003년 소장자료 상세현황은 〈표 6〉과 같다.

10) 〈<http://vaari.linneanet.fi>〉

11) 한편 국회도서관은 장서소장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하 4층, 8,854평 규모의 보존서고 건축하고 있다.

〈표 6〉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관 자료현황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연보 2003, 60p.)

층별		비치자료	비치자료수	면적 (㎡) (책, 점)	관리 및 이용담당	
지상층	비도서1서고	CD-ROM, VTR, DVD, LD 등	161,442	2,192	정보화담당관실	
지상층	비도서2서고	카세트테이프	62,965	1,965		
지하층	도서1 서고	조선문, 구동서, 구양서	155,325	1,888		
지하층	도서1 서고	동양서원본 (KDCP)	103,106	1,888	열람봉사과	
지하층	도서1 서고	정부간행물 (KDCP)	23,987	1,888		
지하층	도서1 서고	아동도서원본, 복본(단행 연속 만화 학습서 등)	177,429	1,888		
지하층	도서1 서고	아동서양서	1,059	1,888		
지하층	도서1 서고	교과서원본, 복본	56,297	1,888		
지하층	도서2서고 (2001년 이전등록자료)	동양서원본 (KDC)	422,826	2,225		
지하층	도서2서고 (2001년 이전등록자료)	정부간행물원본 (KDC)	53,512	2,225		
지하층	도서2서고 (2001년 이전등록자료)	석·박사학위논문복본	349,415	2,225		
지하층	도서2서고 (2001년 이전등록자료)	국내서양서원본	6,511	2,225		
지하층	도서2서고 (2001년 이전등록자료)	비도서(악보, 지도, 점자 등)	47,595	2,225		
지하층	도서3서고 (2001년 이후등록자료)	동양서원본 (KDC)	117,685	1,562		
지하층	도서3서고 (2001년 이후등록자료)	정부간행물원본 (KDC)	19,866	1,562		
지하층	도서3서고 (2001년 이후등록자료)	석·박사학위논문복본	166,161	1,562		
지하층	도서3서고 (2001년 이후등록자료)	아동도서 원본 & 복본	68,949	1,562		
지하층	도서3서고 (2001년 이후등록자료)	일반만화, 아동만화	59,161	1,562		
지하층	고서고	고서	61,959	1,666		자료조직과
지하층	귀중서고	고서귀중본(장서제외)	3,143	365		
지하층	귀중서고	반환문화재	766	365		
지하층	귀중서고	동·서양서귀중본	1,974	193		
총계			2,121,133	12,056	열람봉사과	

(1) 고서고

자료보존관 지하4층에 위치하며 면적은 1,666.18㎡(504.02평)이다. 잣나무 집성목으로 제작한 목재서가 303조와 원자본서가 3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수장량은 30만책으로 2003년 말로 61,956책이 소장되어 있다.

(2) 귀중서고

자료보존관 지하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중층구조의 서고로 1층은 고서 귀중본 서고로, 중층은 일반서 귀중본 서고로 사용되며 총 수장량은 1만책이다. 1층에는 잣나무 집성목으로 제작한 목재서

장 88조, 고지도보관함 9조, 병풍류보관함 6조가 있으며 중층에는 신문진열장 20조와 잣나무 집성목으로 제작한 목제서장 61조, 서랍장 8조가 설치되어있다. 귀중서고는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 귀중본을 수장하는 서고로 자료보존을 위한 특장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외부의 환경오염인자를 차단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조습판넬(천장, 벽)과 너도밤나무(바닥)시공을 국내 도서관으로는 최초로 도입했으며 서고 4면에 공기층을 두어 외부로부터의 급격한 기온변화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고 서고 전체를 완전 밀폐하고 훈증소독이 가능한 특수문으로 시공했다. 2003년말로 귀중서고에는 고서, 잡지, 신문 등 총 5,883점(고서 3,909책)이 소장되어 있다.

(3) 비도서서고

자료보존관 1, 2층에 위치하는 비도서서고는 비도서자료의 과학적인 영구보존을 위하여 온도 17.2℃, 습도 40.5%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서가 길이 23km에 총 소장능력은 약 1,070,000점이다. 비도서1서고에는 카세트테이프, 비도서2서고에는 비디오테이프, CD-ROM, DVD, 음반, 슬라이드 등의 자료가 224,407점 소장되어 있다

(4) 도서서고

자료보존관 지하 1, 2, 3층은 도서서고이다. 1,2,3서고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총 소장능력은 약 230만책이다. 도서1서고에는 조선문, 구동서, 구양서를 비롯하여 KDCP 동양서 일반자료와 이동도서, 교과서 등을, 도서2서고에는 KDC 동양서자료와 석·박사학위논문복본, 국내서양서원본 등을 소장하며, 도서3서고에는 2001년 이후 등록자료 원본을 소장하며, 도서1~3서고에는 2003년 말로 총 1,828,884책이 소장되어 있다.

나. 국립디지털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위해 2002년 4월 기본계획 수립 기술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서관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주요목적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자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인쇄매체와 더불어 디지털 정보자원의 도서관서비스를 극대화하며, 예상되는 장서 수장고 부족 문제 해결 및 지식정보강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있다.

예정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40번지 일대이며 예상 부지면적은 20,000평에 건축연면적 11,500평시설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 기능을 충족시키며 국립중앙도서관의 부족한 장서수장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최첨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특히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자료보존서고는 정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전자출판물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존 매체의 보존 및 원격 정보서비스를 위한 원문정보의 디지털화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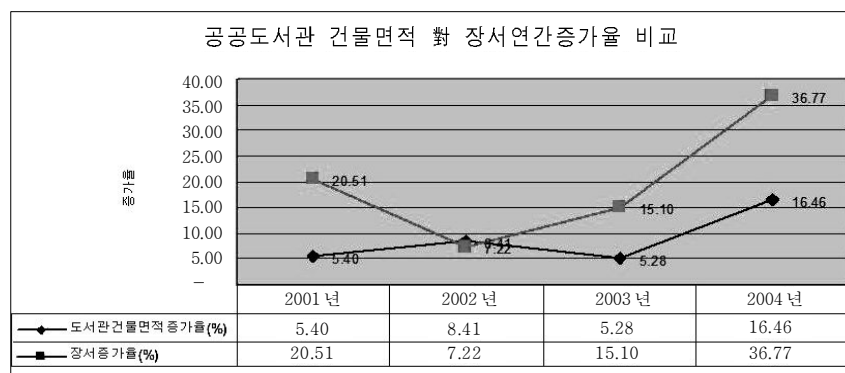
됨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보존 문제가 대두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현황 및 증가추이 분석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장서수장시설의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며, 소장자료 형태가 다양화함에 따라 각 자료별 재질을 고려한 보존환경기준의 수립에 맞춰 지어질 계획이다.

즉 국립디지털도서관 서고의 기본 성격은 디지털도서관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수장시설 부족문제를 해결위한 것으로서 디지털자원 및 인쇄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보존적 기능을 갖춰 열람을 위한 장서 수장보다는 보존을 위한 장서 수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밖에 각종 매체에 담긴 디지털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디지털화가 완료된 장서의 원본을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공간으로 디지털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이 또는 마이크로물 형태의 이중보존 기능과 각종 재난에 대비한 백업파일의 원격 보존기능을 갖춘 서고를 건립할 계획이다.

Ⅲ. 공공도서관협력망구조 및 운영현황

1. 국내 자료공동보존 협력현황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2005년 현재 487개관이 운영 중에 있다. 이 도서관들이 소장자료면적에 대한 향후예측을 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관 건물면적증가율과 연간장서증가율을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도서관 전체 부지면적에 대한 검토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소장공간 확보를 위해 여분의 부지에 새로운 소장건물을 짓는 방안은 막대한 추가예산과 인력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정책결정사항이다. 이러한 추가자원의 부담 없이 현재의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보다 안정적 소장공간을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본고의 취지로 보아 도서관부지면적보다는 도서관건물면



〈그림 1〉 공공도서관 건물면적 對 장서연간증가율비교

적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487개관의 건물면적 증가율은 각각 2001년 5.40%, 2002년 8.41%, 2003년 5.28%, 2004년 16.46% 이고 장서증가율은 2001년 20.51%, 2002년 7.22%, 2003년 15.10%, 2004년 36.77%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물면적이 대부분 장서증가율에 못 미치는 현상을 미뤄보면 향후 공공도서관은 소장자료의 보관을 위한 공간부족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내 자료공동보존협력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자료로는 1997년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되는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조사: 공공도서관”보고서가 있다. 최근 2003년도 발간된 보고서 중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자료 ‘공동보존’부분의 협력현황 실태조사를 〈표 7〉, 〈표 8〉에 요약 분석 정리하였다.

〈표 7〉 전국공공도서관의 보존서고 설치 및 자료폐기기준제정 현황

(출처 : 2005년도 도서관망 운영실태자료집 공공도서관 재구성)

구분	공공도서관수	보존서고		자료폐기기준	
		개소	보유율(%)	개소	보유율(%)
서울	44	0	0	0	0.0
부산	24	4	16.7	21	87.5
대구	13	9	69.2	9	69.2
인천	11	0	0.0	0	0.0
광주	12	1	8.3	0	0.0
대전	15	0	0.0	0	0.0
울산	5	4	80.0	4	80.0
경기	70	27	38.6	13	18.6
강원	39	0	0.0	0	0.0
충북	25	0	0.0	0	0.0
충남	38	0	0.0	0	0.0
전북	36	0	0.0	0	0.0
전남	44	0	0.0	0	0.0
경북	51	0	0.0	0	0.0
경남	42	8	19.0	4	9.5
제주	18	0	0.0	0	0.0
계	487	53	10.9(%)	51	10.5(%)

〈표 7〉에서 전국487개 공공도서관의 보존서고 보유현황과 자료폐기기준유무현황을 분석해보면 서울 44개 공공도서관은 자체 보존서고가 갖추어진 곳과 자료폐기기준을 보유한 기관이 한 곳도 없으며, 비교적 높은 보존서고비율을 보인 곳은 대구 69.2%, 울산 8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료폐기기준유무조사에서는 부산 87.5%, 대구 69.2%, 울산 80.0% 등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 이외의 지역들은 보존서고 및 자료폐기기준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향후 성장하

는 장서의 소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예산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 48개관 전체를 보면 보존서고를 확보한 도서관이 58개관(10.9%)이고 자료폐기기준이 마련된 곳은 51개관(10.5%)으로서 모두 소장공간의 확보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머지않아 소장공간부족문제가 단위도서관들에게 있어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다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도서관들이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보존도서관(Repository Library)라는 협력모델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8〉 전국공공도서관의 보존서고 및 공동보존도서관 설치필요성 조사

(출처 : 2005년도 도서관망 운영실태자료집 공공도서관 재구성)

구분	공공도서관수	보존서고 또는 공동보존도서관 건립필요성	소요율(%)
서울	44	1	2.3
부산	24	20	83.3
대구	13	9	69.2
인천	11	11	100
광주	12	7	58.3
대전	15	1	6.7
울산	5	4	80.0
경기	70	30	42.9
강원	39	※	0.0
충북	25	5	20.0
충남	38	38	100
전북	36	※	0.0
전남	44	44	100
경북	51	11	21.6
경남	42	35	83.3
제주	18	※	0.0
계	487	216	44.4(%)

※ 자료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표 8〉을 보면 인천(100%), 충남(100%), 전남(100%) 지역 공공도서관들 모두가 보존서고 또는 공동보존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볼 때 487공공도서관 중 216개 공공도서관인 44.4%가 보존서고 및 공동보존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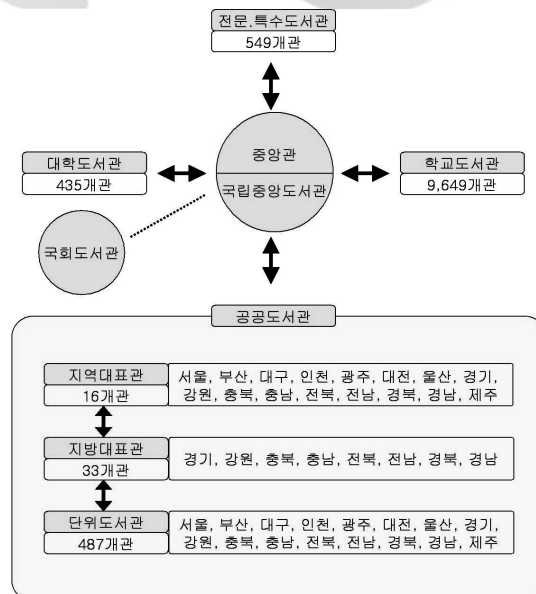
한편 대학도서관 분야에 대한 조옥수(2003)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국공립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50개 대학 중 27개 대학도서관(54%)이 자체 자료보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지역 13개 대학도서관이 공동보존도서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2004년 11월1일 현재 보존서고 도서수용률이 평균 84%나 되어 2~3년 뒤에는 보존서고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도서관들이 호소하고 있는 현실

적 문제점들은 예산부족, 권역별 내 도서관 자료공동방안 협의 추진필요성 절감, 보존서고 설치방안 강구필요성, 각 단위도서관의 서고공간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대표관에 공동보존서고 건립 및 자료이관기준 마련 시급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분석해보면 현재 도서관계가 장서소장공간 부족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자체폐기기준 미설정, 도서관간 협력체제 미구축, 장서수와 폐기 및 보존에 대한 도서관 내부 정책적 제한 등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소장공간문제해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도서관계가 관심을 불문하고 다양한 공동자료보존협력이 모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공공도서관 협력망 구조 및 운영실태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1조~45조(도서관협력망)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협력망 기능수행에 관한 기획, 조정, 지도는 물론 협력망을 통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 하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전국 공공도서관들과 협력하여 각종 도서관정보화사업, 분담목록, 분담수서, 상호대차, 공동보존, 문화프로그램협력 및 공동홍보, 관외대출증 공유 및 복사카드 공유, 도서관운영관련 협정(협약)체결, 외국도서관과의 교류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2〉 공공도서관협력망 구조도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2005)

〈그림 2〉는 현재 공공도서관협력망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앙관으로 하고 국회도서관을 협력도서관으로 하며 대학도서관 435개관, 전문·특수도서관 549개관, 학교도서관 9,649개관, 공공도서관 487개관을 연계하여 다양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에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 모범적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분야는 공공도서관협력망 분야이다. 2005년 현재 공공도서관을 16개 지역대표관, 33개 지방대표관, 487개 단위도서관으로 나누어 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대학, 전문, 특수, 학교도서관 등 각 관종별, 협력망 기반조성 후에 연차적으로 상호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연도별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협력망 운영현황을 연차별로 조사분석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16개 지역대표관은 중앙관의 협력망 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시·도의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협력망 운영계획을 중앙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33개 지방대표관은 지역대표관과 단위도서관을 연결하여, 효율적인 지역별 협력사업을 수행하며 나머지 487개 도서관은 단위도서관으로서 지역별 도서관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중앙관의 협력망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이런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구축 등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수행, 상호대차, 분담수서, 분담목록, 공동보존, 문화프로그램 및 공동홍보, 관외대출증 공유 및 복사카드 공유, 도서관운영관련 협약 및 협정체결,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Ⅳ. 국가보존도서관 및 공동보존도서관 운영 방안

1.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 모델

공동자료보존소는 설립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한 도서관이 보존도서관을 동일공간이나 별도의 토지를 수용하여 세우는 방식, 둘째, 두개 이상의 도서관들이 참여하지만, 참여도서관 중 하나의 건물을 빌려 공동자료보존소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식(예: 뉴잉글랜드 보존도서관: NEDL) 셋째, 두개 이상의 도서관이 별도의 건물을 설립, 공동보존도서관으로 이용하는 방식(예: 연구도서관센터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CRL) 등이 있다.

이밖에 공동자료보존소의 설립유형을 보면 기관형 보존소(institutional storage), 합동자료보존소(Cooperative Storage), 공동협력보존소(Collaborative Storage), 지역공동보존소(Regional Library Cengtre), 자료공동보존소(Repository Libraries) 등 5개 유형이 있다.

이 중 합동자료보존소(Cooperative Storage)는 동일지역내의 도서관들이 공동으로 보존소를 설립하여 이용도가 낮은 자료를 공동보존하는 방안이다. 저장된 자료에 대해 서로 공유하거나 위탁관

리가 아닌 단순한 공간의 대여만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형태이다. 대표적 기관으로 The Northeastern Ohio Cooperative Depository가 있다.

공동자료보존소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역할과 기능은 첫째, 도서자료의 활용측면에서 이용도가 높은 자료와 낮은 자료를 분리하여, 이용도가 낮은 자료는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기능이다. 이것은 이용도가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서고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이용도가 낮은 자료의 공동보존을 통해 경제성을 기하려는 의도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 전체의 서비스나 도서관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둘째,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을 바탕으로 회원도서관 간의 협력체제를 조직, 도서관망의 확대로 봉사영역을 넓히는 기능이다. 셋째, 보존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중 이용률이 낮은 자료라 할지라도 그 자료가 가치가 있는 자료일 경우 보존과 이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다.

본고에서는 자료공동보존을 위한 협력망으로서 공공도서관협력망을 활용하였고 그 단계를 3단계로 하여 최상위단계에는 중앙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보존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중간단계는 16개 지역대표관이 공동보존도서관의 기능을 하고 나머지 지방대표관과 단위도서관들은 하위단계에서 기능을 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동보존도서관의 규모와 역할 모델을 <그림 3>과 같이 3단계 서비스 층으로 나누었다. 1단계서비스 계층에는 자관도서관(local libraries)들을 말하는데 자관도서관은 완전한 이용자서비스, 접근, 대출, 중복도서관다수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음2단계 서비스 층에는 지역공동보존도서관(Regional Repositories)이 위치하고 제한된 이용자 서비스와 계획된 복권소장 등의 성격을 지니며 마지막 3단계 서비스 층에는 국가보존도서관(Archival Repositories)이 위치하여 일반이용자서비스 불가, 긴급기관서비스, 계획된 장서증복 성격을 지니고 있다. 1단계에서 3단계로 오를수록 분담운영(shared management)이 늘어나고, 도서관의 자율성은 감소되며, 자료접근 가능성이 감소되고, 보존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자료 : Payne 2004)

<그림 3> 공동보존도서관의 3단계 분산장서모델(Distributed Collection Model)

2. 국가보존도서관(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과 공동보존도서관(Repository Library)의 설립과 상호협력망 구축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자료의 공동보존이라는 협력체가 해외처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구축운영 중인 공공도서관협력망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제도정비를 해 나간다면 우리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자그마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자료공동보존 체제를 우리나라에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보존도서관 기능 담당

앞장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국가보존도서관(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이란 공동보존도서관(Repository Library)으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와 자체 수집소장한 자료를 국가문헌(National Document)을 보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가급 도서관을 말한다.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등 주로 유럽의 국가보존도서관들은 개별 도서관의 자료를 위탁관리하고 장서수집을 위한 납본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 기관으로는 핀란드 국립보존도서관(FNRL)와 노르웨이 국립보존도서관(NRLN) 등이 있다.

〈표 9〉 국가보존도서관, 공동보존도서관, 보존도서관의 개념적 구분

구분	국가보존도서관	공동보존도서관	보존도서관(기존개념)
영문명	• 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	• Repository Library	• Deposit Library
장서소유권 (ownership)	• 상호협력참여도서관	• 상호협력참여도서관	• 개별도서관
운영주체 (governance)	• 국가도서관 • 공동보존도서관으로부터 위탁운영권 위임	• 상호협력참여도서관	• 개별도서관
장서수집 대상 (collection)	• 국가문헌 • 최종본(The Last One Copy) •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 • 희귀본, 귀중서, 고서 및 다양한 매체자료	• 이용률이 낮은 자료 • 품질, 절판도서 등의 Rare Book • 보존가치와 자료이용가치가 상존하는 자료 • 준현용자료의 보존과 이용 • 참여도서관의 제적, 폐기 자료 • Record Keeping Center 적 기능	• 개별도서관의 제적, 폐기자료 • 이용률이 낮은 자료, 훼손자료, 오판손자료, 복본자료, 구판 등 • 자료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료
접근 (Access)	• 접근통제원칙 • 제한적 내부열람	• 대출반납 등 도서관적 관리기능 수행 • 서가(shelve)적 기능 수행 • 자료의 평가선별(appraisal) 후 이관 및 폐기기능 수행	• 주로 소장과 보존의 목적이 강함 • 서가(shelve) 로서의 기능이 미약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8장(제41조~45조) 도서관협력망’이라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앙관’으로서 487개의 공공도서관협력망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법적, 협력적 지위를 기반으로 국가문헌을 수집 보존할 수 있는 국가보존도서관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협력망 내 16개 지역대표관으로부터 이관된 최종본, 희귀본 등 보존 가치가 있는 ‘국가문헌’을 수집하며 최신의 자료보존 설비와 인력, 예산 등을 집행 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장서는 이관도서관의 원소유권을 인정하나 자료접근에 대한 통제 및 제한적 내부열람 등 자체적 위탁운영권을 갖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인 국가보존도서관은 국가문헌의 통합적, 안정적 관리운영이 가능해지며 자료공동보존 협력참여 도서관들은 장서의 소유권(ownership)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보존·복원 시설과 인력의 관리하에 자신들의 장서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둘째, 지역대표관의 공동보존도서관(Repository Library) 설립

공공도서관협력망 중 16개 지역대표관에 상호협력체제 내에 있는 지방대표관 및 단위도서관들의 장서 소장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도서관의 서비스기능(circulation), 자료보존(preservation) 및 복원(conservation) 기능, 폐기 및 이관보존을 위한 평가선정 (appraisal)기능을 갖는 공동보존 도서관(Repository Library)을 설립하는 것이다

〈표 10〉 공공도서관협력망 구성도서관별 주요 기능

구분	주요기능	비고
중앙관 (국립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도서관(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 기능수행 • 국가문헌의 수집, 보존 • 자료폐기기준 수립 및 시행 • 국가급 자료보존시설, 인력 예산운영 • 지역대표관과 상호연계 및 협력 • 디지털화된 DB의 이관기관으로 협력적 제공 	
지역대표관 (16개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보존도서관(Repository Library) 기능수행 • 지방대표관과 단위도서관의 소장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제공 • 하위기관 제공자료의 Record Keeping Center로서의 기능 	
지역대표관 (16개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폐기기준 수립 및 시행(폐기, 준영구, 영구보존 등) • 평가선별(appraisal)에 의한 중앙관으로 이관 및 폐기기능 수행 • 제공도서관의 장서 소유권 유지 및 관리 • 자료평가선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장서소유권이관 보존년한 지정 등) 	
지방대표관 (38개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표관에 정기적 자료이관 및 상호협력 • 이관자료의 효율적 자료이용을 위한 도서관서지DB 공유협력 • 자체 폐기기준 수립 및 시행 • 자체 자료보존소는 귀중본, 향토자료 등 지역가치자료 보존 	
단위도서관 (487개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표관에 정기적 자료이관 및 상호협력 • 이관자료의 효율적 자료이용을 위한 도서관서지DB 공유협력 • 자체 폐기기준 수립 및 시행 • 자체 자료보존소는 귀중본, 향토자료 등 지역가치자료 보존 	

지역대표관은 지방대표관 및 단위도서관의 소장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제공하고 이들에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을 일반이용자에게 검색, 대출, 반납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또한 별도의 자료폐기준을 수립하여 국가보존도서관으로 이관할 자료들의 보존년한 등을 결정한다. 수집대상 장서로는 각 지방대표관 및 단위도서관들이 소장한 이용률이 낮은 자료, 품질 및 절판 도서, 보존 및 자료이용가치가 상존하는 자료, 자료의 가치판단을 유보한 자료 또는 제적 및 폐기 자료 등이 있다. 이밖에 지역대표도서관은 이관대상자료의 선정, 자료의 이용 및 배가, 폐기대상자료의 선정 등의 기능을 하면서 국가보존도서관과의 밀접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문헌 수집의 중간 매개역할을 한다.

▶ 셋째, 지방대표관 및 단위도서관에 대한 상호지원강화

지방대표관 및 단위도서관은 공공도서관협력망을 기반으로 설립된 3단계 협력망 중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 이들 도서관들은 각 지역별, 주제별 공동보존도서관에 보존가치 및 이용률이 비교적 낮은 자료들을 이관하여 자관의 소장공간의 확보라는 주된 목적을 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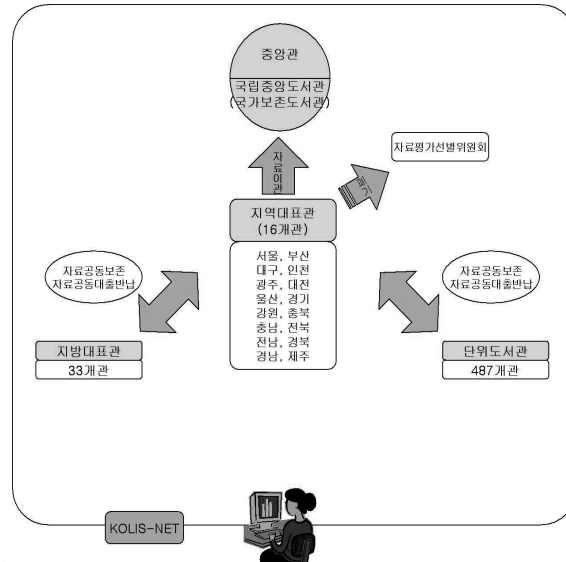
또한 자체적으로 향토자료, 희귀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으나 비교적 보존·복원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 이를 공동보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대표관에 이관·보관함으로써 장서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보다 안전한 소장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역대표관과의 자료공동보존, 소유권, 자료이용 범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 넷째, 기구축 도서관협력네트워크 활용의 극대화

공공도서관 협력망에는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II)이 2004년12월31일 현재 370개관에 보급완료되어 있고 지속적인 시스템보급과 업그레이드 중에 있다. 또한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이 구축되어 379개 공공도서관들이 상호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지방도서관 및 단위도서관들이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 NET)을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지DB를 추출할 필요 없이 소장정보 중 별치기호만 변경해 주면 바로 추가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소요 없이 이관대상 자료들을 선정할 수 있고 소장자료의 실시간 확인을 가능하도록 해 준다.

또한 공동보존도서관 입장에서는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들여 이관된 종합목록을 구축할 필요 없이 이관된 도서들을 OPAC을 통하여 자유롭게 검색,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4〉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구성도

▶ 다섯째, 납본도서관과의 효율적 연계

공공도서관협력망 중 국가문헌의 수집을 위하여 납본을 대행하는 도서관은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납본대행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을 16개 모든 지역대표도서관으로 확대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보존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이 지방출판물의 망라적 수집을 함께 함으로써 국가보존도서관의 국가문헌 수집기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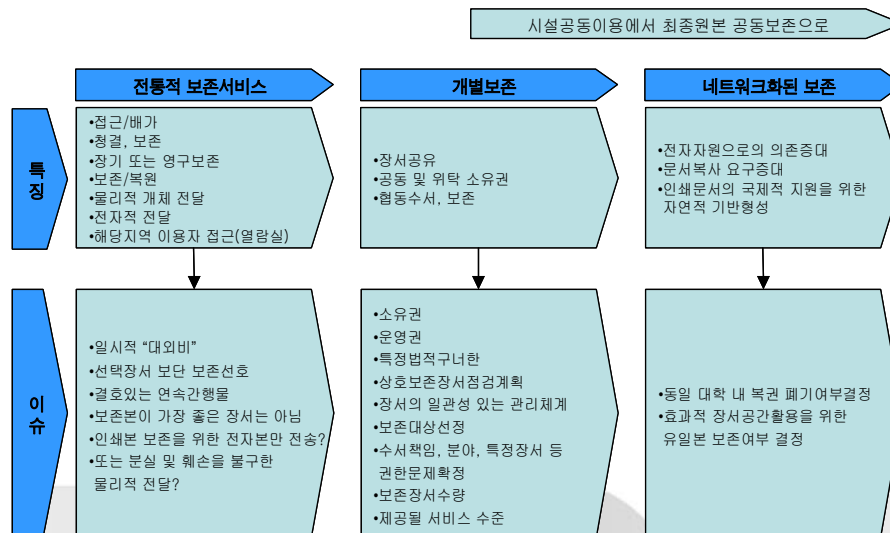
〈표 11〉 납본대행 지역대표관(5개관)

도서관명	운영주체	지정일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교육청	1997. 4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	"
인천광역시립북구도서관	"	2000.10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시 청	1999. 5
대전광역시립한밭도서관	"	1998. 4

▶ 여섯째, 모든 관종을 포괄하는 국가통합레포지토리 네트워크 구축

지금까지는 공공도서관협력망을 기반으로 한 자료공동보존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협력망은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모든 관종의 보존도서관과의 연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에 개별적 또는 지역협의체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동보존도서관들이 상호네트

위크화 되어 보다 가치있는 자료들이 중복을 최소화하며 보존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출처 : Lizanne Payne 자료 재구성, 2004.5)

〈그림 5〉 공동보존도서관발전단계별 특징 및 주요이슈

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협력망을 활용한 국가보존도서관과 공동보존도서관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하였다. 국가보존도서관이 국가문헌의 수집과 보존기능을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공공도서관 협력망 중 16개 지역대표도서관에 공동보존도서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자료의 폐기 및 이관기준 마련, 자료보존·복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 공동보존협력망 단계별 기능과 역할도 다뤘다. 이밖에 공공도서관이 공동보존을 위한 필요여건들로는 도서관간 협약을 통한 상호대차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항목 변경, 폐기에 대한 자연손실률 규정 신설, 자료폐기범위가 완화되어야 하며, 지역대표관 내에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는 등 지역대표관의 기구 및 기능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며, 신설도서관에 자료보존시설을 갖추도록 법령개정 등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다 심도 있게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관과 건립예정인 디지털도서관 서고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이다. 지금까지 최신 설비를 갖춘 외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국가문헌에 대한 선정과 폐기, 보존연한, 명확한 소장자료기준 제정, 자료의 보존·복원을 위한 조직구축, 인쇄 및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활성화

화,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및 기능적 권한 마련 등 다양한 법, 제도,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도서관 단위도서관들이 국가문헌레포지토리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 이러한 공공도서관협력망을 통한 자료의 공동보존 체제를 기반으로 향후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협력망 체제와 상호연계한 새로운 자료공동보존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미희. 국내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폐기실태와 공동보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005)
- 국립중앙도서관. 2005년도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5.
- 조옥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참조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지역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005.
- 김남석. “國家文獻의 蒐集과 保存.” 도서관학논집, 제 15권 (1988), pp.79-111.
- 한성택. “국가통합 도서관 협력체제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5권, 제 1호 (2004), pp.19-49.
- 홍현진 등. “과학기술문헌센터 건립 최적화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2호(2003), pp.285-318.
- 조영주. “도서관 및 기록관 자료보존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4 권 제 2 호 (2004), pp.101-116.
- 강철승. “자료보존수장고 설계와 실제.” 기록관리보존, 제7호(2002), pp.65-71
- 배현숙. “보존도서관으로서의 규장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2004), pp.97-117.
- 한상완 등.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 환경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권, 제1호 (2001), pp.67-95
- Kuopio, Finland 13 15.5. 2004, *Preserving and Maintaining Availability of Print Material: the Role of Repository Library*.
<<http://www.nrl.fi/kuopio2/conference.htm>>[cited 2005.12.29].
- Lizanne Payne, Executive Director,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 “*Depositories and repositories Changing models of library storage in the United States*.” [PowerPoint slides], 2004.5

КСІ